



hananimuibetop.org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페이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현재 페이지).
2.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3.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4. [부록 5d: 안식일의 음식 — 실천적 지침](#)
5.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6. [부록 5f: 안식일의 기술과 오락](#)
7.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교회에 가야 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특정한 날에 대한 계명은 없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날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명령하신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쉬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가톨릭, 장로교 또는 다른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일요일이나 다른 날에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명령 — 일곱째 날에 쉬라는 의무 — 에서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어느 날이든 가능함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날에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공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어느 날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날은 네 번째 계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 다른 어떤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계명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쉼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이 **성막**이나 **성전** 혹은 교회에 안식일(또는 일요일)에 가기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계명 안에 이 중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계명에는 단지 우리가 일하지 말고, 심지어 동물에게조차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구별되고, 성별된 날)로 언급하십니다. 창조주간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히브리어 שבת(Shabbat) — 그치다, 쉬다, 중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히브리어 קדוש(kadosh) —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2-3).

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욱 자세히 주실 계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조주는 이 날을 앞선 여섯 날(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등)과 구별하셨습니다.
2. 그 날에 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요한복음 4:24)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표현 — 신학적으로 ‘인간화 표현(anthropomorphism)’이라 부르는 방식 — 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일곱째 날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해시키셨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샤밧”(Shabbat),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죄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 날에 특별히 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지구상에 아직 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계속 일곱째 날에 쉴 것임을 나타냅니다.

안식일과 유대교

또한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조차도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보이신 행동을 땅에 있는 참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할 뿐이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

창세기의 일곱째 날

창세기에 기록된 이 구절은 창조주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셨으며, 이 날이 쉼의 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바로 전날 창조된 인간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야, 일곱째 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방 땅의 노예로 살던 택한 백성은 일곱째 날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새겨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임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네 번째 계명의 전체 내용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신 전체 내용을 살펴봅시다:

“안식일[히브리어 *שבת* (*Shabbat*) — 그치다, 쉬다, 중단하다]을 기억하여[히브리어 *קדש* (*kadesh*) —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그를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지니[히브리어 *מלאכה* (*m'larrá*) — 일, 직업], 일곱째 날[히브리어 *יום השביעי* (*uma shivi-i*) —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이방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출애굽기 20:8-11).

왜 이 계명은 “기억하라”는 동사로 시작됩니까?

기존의 관습을 상기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라”[히브리어 **זָכַר (zakar)** — 기억하다, 상기하다]는 동사로 계명을 시작하신 것은,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그분의 백성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자주 또는 올바른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열 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 계명 전체를 다루는 성경 구절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계명의 초점

출애굽기의 이 구절에 대해 길게 논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연구의 목적에 집중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서 예배, 모임, 찬양, 기도, 성경 공부 등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날 — 일곱째 날 — 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방문객), 종들(노동자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포함하여, 이 날에는 어떤 세속적인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는 선한 일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일(요한복음 5:17),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마태복음 12:1),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선행(요한복음 7:23)과 관련된 행위들은 일곱째 날에도 행할 수 있으며, 이는 네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며 기뻐하기

하나님의 자녀는 일곱째 날에 자신의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는 단지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편 1:1-2; 또한 참조: 시편 40:8; 112:1; 119:11; 119:35; 119:48; 119:72; 119:92; 욥기 23:12; 예레미야 15:16; 누가복음 2:37; 요한일서 5:3).

이사야 58:13-14에 담긴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한 쉼의 날로 지키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 하나를 전하셨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네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먹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니라”(이사야 58:13-14).

안식일의 축복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짐

이방인과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연결된 아름다운 특별한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선지자에게, 안식일의 축복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려 하는 이방인들[*גֵּרִים nfikhār* — 이방인,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 중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자를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니라”(이사야 56:6-7).

토요일과 교회 활동

일곱째 날에 쉬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메시아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곱째 날에 쉼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하신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임을 갖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 모임, 교리 공부, 치유 집회 등을 개최합니다.

토요일에 회당에 가는 전통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들 모두 토요일에 회당에 갑니다. 이는 그들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안식일

성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심

예수님께서도 토요일마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곱째 날에 성전에 가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의 일부라고 암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일주일 내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17).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라”(누가복음 4:16).

예수님의 가르침, 말과 본보기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본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자들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고정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친구, 교회, 가족으로부터의 반대가 일어날지라도 말입니다.

머리카락과 수영, 치치트(술, 장식끈), 할례, 안식일, 그리고 금지된 고기에 관한 계명들은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영원입니다.